

유통 | 비중확대(유지)

호황의 '15년 일본 여행시장, '16년 중국인 여행객 여전히 한국 우위

'15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은 47.1% 증가한 1,973 만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 '70년 이후 45년만에 입국자수가 출국자수를 상회하는 기록도 달성했다.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한국이 여전히 19.8%를 상회하고 있으며, '16년부터 "한국방문의 해"가 시작되어 격차 확대가 나타날 전망이다.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 800 만명 유치목표이며, 메르스의 부정적 인식이 2분기부터 희석될 경우 가능성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.

'15년 일본 방문여행객 1,973 만명으로 47.1% 증가

한국여행시장에서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이 떠난 사이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여행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. 방일 외국인수는 '14년 1,341 만명을 47.1% 상회하는 1,973.7 만명을 기록했으며, '70년 이후 45년만에 입국자수가 출국자수(1,621.2 만명)을 상회하는 두가지 기록을 연출했다. 원엔환율은 '14년 말 920.14 원 대비 소폭 상승한 972.01 원을 기록했지만 한국인 여행객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유지되었다. '14년 일본 여행시장에서 21.1%, 20.5%로 각각 1, 2위를 유지했던 대만, 한국인 여행객 비중은 '15년에는 18.6%, 20.2%로 하락하며 중국의 25.3%에 선두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.

'16년 한국 VS 일본의 중국인 인바운드, 한국의 여전한 우위 예상

'15년 중국인 입국자수는 한국이 2.3% 감소(598 만명)했으나 107.3% 증가해 499 만명을 기록한 일본을 19.8% 상회하고 있다. '16년은 "한국방문의 해(2016~2018)"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중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,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환급제도 및 컨텐츠 확대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. 메르스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희석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800 만명 유치목표가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.

한국과 일본여행시장은 경쟁이지만 각각의 독특한 매력으로 공존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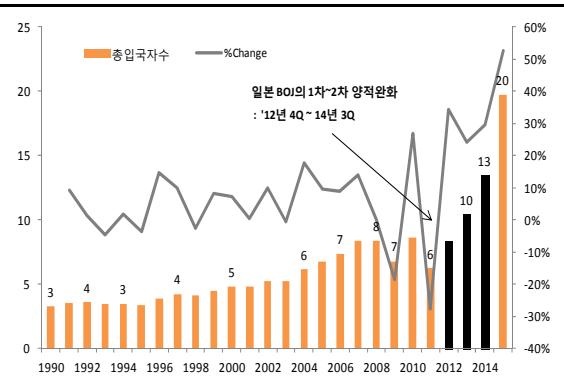
중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과 일본여행시장은 동시에 선택 가능한 변수이지만 각각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일정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상한다.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이 매년 15% 이상 성장하면서 호황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'15년 1.16 억명이었던 중국인 아웃바운드는 2020년에는 2 억명을 상회할 전망이다.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김기영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팀장은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사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4 단계(6개월 기준) 25% 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 미만 → 매도

Spot Com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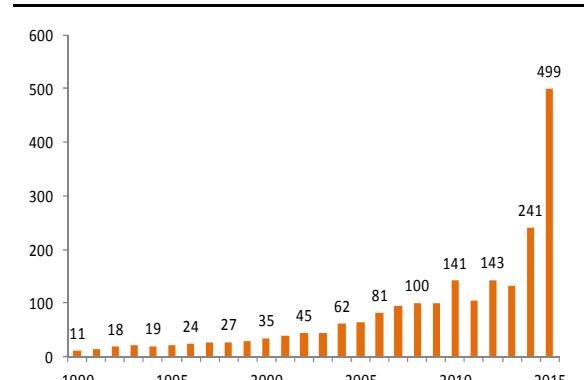
일본 총입국자수



자료 : 일본 관광국

(단위 : % 백만명)

일본의 중국인 인바운드



자료 : 일본 관광국

(단위 : 만명)